

## 대한전선 · LG전선등, 경상이익 대폭증가

올들어 전선업계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른 광케이블 수요증가등 특수에 힘입어 1/4분기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의 경우 1/4분기 매출이 3,000억원, 경상이익이 390억원을 기록, 지난해 연간 경상이익 362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렸다.

LG전선(대표 : 권문구)도 3월말 현재 매출액이 4,708억원, 경상이익이 380억원으로 잠정 집계,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무려 358%나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올들어 3월말까지 광통신케이블, 초고압전력케이블 및 스테인레스제품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며 “특히 지난해 9월 알루미늄사업부가 분할되면서 재무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며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기증권중 일부를 매각해 상당한 액수의 처분이익을 실현한 것도 매출증가의 큰 요인이다”고 분석했다.

또 “대한전선은 향후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압전력케이블분야의 설비확충을 이미 완료했으며 최근들어서는 동남아와 중동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하고 있어 매출 증가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LG전선 관계자도 “인터넷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부의 국가 초고속망 조기구축계획으로 인한 광케이블 수용의 증가가 매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다”고 밝혔다.

LG전선은 이같은 영향으로 올들어 1/4분기 광케이블의 해외 수주액이 작년 총 해외수주액의 7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동기대비 357%였던 부채비율이 작년말 기준으로 159%로 줄어들어 금융비용이 대폭 이익으로 전환됐다. 또 구조조정이 일단락돼 구조조정 비용이 절감되고 그 결과로 기계사업이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보인점 등이 실적호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LG전선은 16.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LG정밀이 6월 상장될 경우 지분법 평가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 올해 실적목표인 2조1,000억원, 경상이익, 1,400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전선 관계자는 “올해안에 제2의 수익원으로 급부상할 전자부품사업의 수익성이 가시화될 경우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국이 안정되고 남북경협이 구체화될 경우 북한의 전력·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사업변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계양전기, 전동공구류 시장 급부상

계양전기의 올해 매출액이 전년동기 보다 22.5% 증가한 1천3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상이익도 전년대비 15.8% 증가한 1백6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회사 관계자는 “올 1/4분기에 전동공구의 내수판매가 전년동기 보다 33% 늘고, 엔진부문의

매출이 2백20% 증가해 전체 매출액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적인 전동공구업체인 메타보사로부터 품질을 인정받아 납품계약이 체결돼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미미전자, 청담대교 1,320m라인형 조명장치 설치

서울 광진구 자양동과 강남구 청담동을 잇는 청담대교에 최신식 조명시설이 설치돼 야간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청담대교 경관조명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점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청담대교 시공사인 동부건설(주)의 추천을 받은 7개 업체의 작품을 심사한 결과 미미전자(주)를 경관조명 추진업체로 최종 선정한 바 있다.

미미전자는 청담대교를 한강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만들기 위해 대교 교량측면에 광섬유를 이용한 1,320m 길이의 라인형 조명장치를 설치해 화려함을 더했다.

또 교각 정면과 측면에 백색 및 녹색투광기를 설치, 편안하고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도 록 했다.

시는 앞으로 계절과 요일에 따라 라인조명의 색깔을 백, 녹, 청, 분홍색 등으로 다양하게 연출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최초의 복층교량인 청담대교는 한강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대교를 오가는 시민은 물론이고 한강 시민공원이나 유람선 이용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한강다리도 경관조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케이디파워, 지능형 변전설비 해외서 각광

전력벤처기업인 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가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형 변전실, 지능형 전력제어기, 지능형 MCC UNIT이 인도네시아 및 인도전력시장에서 커다란 호평을 받고 있다.

케이디파워는 4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된 인도네시아 전기전시회에서 전력요금을 20% 이상 절약할 수 있으며, 무인운전이 가능한 지능형 변전실, 지능형 전력제어기, 지능형 MCC UNIT를 출품, 관람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기전시장 현지서 인터넷을 이용해 전력안전관리 프로그램 제어 상황을 직접 시연, 인도네시아 전력관계자(PLN)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회사는 전시기간 동안 약 400여명의 바이어들

과 수출계약 상담을 가졌으며, 유럽산 전력설비를 수입하는 바이어와도 수출계약 단계까지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케이디파워는 최근 인도 전력시장에 진출해 지능형 전력제어기와 지능형 MCC UNIT를 현지업체와 월 100만달러를 판매하기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전력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압기 온도 및 제어반 온도, 전력요소의 43가지가 표시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무인 원방관리제어가 가능한 전력요금 절감 시스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 수출전망이 매우 밝다고 회사측은 말했다.

## 케이디파워, 김포신공장 준공 제막식 거행

전력분야 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는 창립 10년만에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61-2번지에 대지 8,39m<sup>2</sup> 건평 4,315m<sup>2</sup>의 대형공장 2동과 사무동을 완공하여 5월 13일(토) 12:00 전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마음 선언식을 통하여 “한국의 표준, 세계의 표준”을 열기 위한 김포시대의 서막을 장식하고 “한국경제의 5%를 분명히 책임지기 위해” 전 종업원들은 가일층 노력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케이디파워의 박기주 대표는 이날 선언식에서 우리가 만들고 선도하는 서비스가 한국의 표준이 되고 나아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서로 밀고 당기는 팀웍의 중요성을 역설, 미래형 중전기기의 선도 및 인터넷+디지털+네트워킹이 결합된 전력분야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계획을 발표하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MOTTO 제막식을 거행하여 일치 단결하는 종업원들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김포공장에는 국내 최고의 기술을 갖춘 협력업체 7개사가 함께 이전하여 테크노피아를 형성하고, 4월 29일 상용서비스가 실시된 iKEN(Korea Electric network by Internet) 서비스를 위한

중앙통제실과 전력종합망관리 시스템을 완비하고 세계 최초로 Web기반 실시간 전기안전관리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6월 16일 2차상용 확대서비스(유료)에 들어갈 예정이다.

## 극동전선, LAN용 UTP케이블 국내 첫 KS 획득

극동전선(대표 : 최병철)은 최근 LAN(근거리통신망)용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에 대한 KS(한국산업표준규격)를 국내 처음으로 획득했다고 밝혔다.

극동전선이 지난 4월 20일 최초로 KS를 획득한 UTP케이블은 카테고리 3, 4, 5급으로 최근 들어 인터넷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사무용빌딩, 아파트, 학교 등 LAN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깔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UTP케이블에 관한 이렇다할 품질인증제가 시행되지 않아 제품의 신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 하반기에 국가표준이 제

정돼 근거리통신망 시설·품질을 크게 개선하게 됐다.

극동전선은 우리나라 LAN케이블의 선두업체로 일찍이 미국 UL, ETL 등 유수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전송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 해외규격 인증획득도 받아낸 이 부분에 대표적 업체이다.

또한 GQ 마크를 획득하는 한편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른 고속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카테고리 6 케이블에 대해서도 개발을 완료, UL시험을 진행중에 있다.

극동전선은 "주력제품인 선박용케이블과 함께 LAN케이블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세계적인 기술력 확보와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 대한전선, 중동지역 진출 '활발'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이 중동지역에서 초고압 대형프로젝트를 잇따라 수주, 올 초고압전력부문에 서 2,000억원 규모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대한전선은 올해 2월 국내업체로는 최초로 아랍에미레이트연합에 1,500만달러 규모의 132kV XLPE 초고압지중케이블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대한전선은 두바이 시내 지중송전선공사에 필요한 케이블과 초고압 접속자재를 5월부터 선적, 공사에 들어가 올 11월 안에 완공할 계획이다.

또 올 4월에는 이라크 전력청이 실시한 132kV XLPE 초고압 전력케이블 200km 국제입찰에서 유럽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을 제치고 1,500만달

러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대한전선이 수주한 물량은 '90년대 초 걸프전 이후 이라크가 한국업체에 발주한 인프라 부문 프로젝트중 사실상 최초의 대형물량이다.

대한전선은 지난해에도 사우디아라비아전력청과 132kV XLPE 및 O.F 초고압 지중케이블을 납품하여 현재 설치중에 있으며, 말레이시아 전력청과

도 극초고압 275kV O.F 케이블을 2,700만달러에 수주한 바 있다.

대한전선은 이로써 중동지역 케이블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최근 중동지역의 유가인상으로 초고압 대형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되는 만큼 추가 물량도 기대하고 있다.

## LG산전, 인버터 신제품 출시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수출전략형 모델 인버터인 스타버트-IS 5 20 기종(1~30HP(마력) : 200V/400V 계열) 개발을 완료, 6월부터 국내의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약 8억원을 투입, 개발한 스타버트-IS 5 시리즈는 기존의 스타버트-IS 3에 비하여 크기를 30% 정도 축소했으며 센서리스 벡터제어 알고리즘 채택으로 범용 인버터에서 문제점이던 저속에서의 토크특성 저하 및 부하변동에 따른 전동기의 속도 변동 현상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또한, 오토 튜닝 기능 채택으로 최적의 운전과 사용상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으며, 확장 입·출력 보드 및 다양한 통신 옵션(RS 232/485,

DeviceNet, Modbus RTU, Profibus)등 풍부한 옵션 확보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신제품은 PID(비례/적분/미분)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플랜트(Plant) 또는 프로세스(유량, 온도, 압력 등) 제어와 같은 정밀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이다.

특히, LG산전은 국내용 제품에는 국산 전동기 특성에 적합한 전동기 과열보호기능을 탑재하여 안정성과 사용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LG산전은 이번 출시하는 스타버트-IS 5에서 내년에 약 200여억원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대중공업, 변전소용 GIS 개발

현대중공업(대표 : 조총휘)이 345kV 63kA 4000A급 변전소용 대용량 절연개폐장치를 개발했다.

현대중공업이 개발한 345kV 63kA 4000A급

대용량 가스절연 개폐장치는 변전소나 송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순간적으로 63000A의 높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0.3초 이내에 차단, 감전사고

예방 및 각종 전기기기를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로서 변전소에 필수적으로 설치되는 장비이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기존의 제품인 345kV 40kA 4000A 모델보다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이미 한전의 규격인정시험에서 그 품질의 우

수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중공업은 이 제품이 외국 회사와의 기술 제휴 없이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된 만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대중공업, 인도에 국내 최초로 저압차단기 기술 수출

현대중공업(대표 : 조총휘)이 국내 업계로는 최초로 인도에 저압차단기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측에 따르면, 최근 산업용 배전기기의 핵심 자재인 배선용차단기와 기중차단기를 인도의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SPACEAGE SWITCHGEARS)사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 기술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런 기술수출은 저압차단기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이 올해부터 오는 2006년 1월까지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사에 단계별로 차단기 제작에 관한 제반기술을 전수해주는 대가로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사로부터 매년 200만불 상당의 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1차 계약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이 가능할 뿐 아니라 생산제품에 대한 순판매가의 3~7.5%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스페이스에이지 스위치기어사는 아랍 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본사를 둔 스페이스에이지 그룹 산하의 인도내 최대의 배전반 전문생산업체로, 현대중공업은 스페이스에이지사가 기술자립을 이룩할 때까지 제반기술 전수 및 완제품 또는 반제품 형태의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

인도 저압차단기시장은 현재 약 1천억원 수준이나 연간 1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갈수록 수요가 커지고 있어 잠재력이 큰 인도시장을 노리는 세계적 메이커들이 앞다퉈 진출을 꾀하는 곳이기도 하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기술 수출로 인도시장을 선점,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돼 인도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